

## 시간경과에 따른 색상의 인지도와 선호도의 차이 -1998년과 2004년의 색상 인지도와 선호도 비교 -

박혜령<sup>1)</sup> · 심규남<sup>2)</sup> · 박미령<sup>2)</sup>

- 1) 한서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2) 목포대학교 의류학과

### Difference of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Color According to Time Passage -Comparison between 1998 and 2004-

Hea-Ryung Park<sup>1)</sup>, Kue-Nam Shim<sup>2)</sup> and Mee-Ryung Park<sup>2)</sup>

- 1) Dept. of Fashion Design, Hanseo University, Seosan, Korea  
2) Dept. of Clothing & Textiles,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nge of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color according to time passage. The subjects were university students and for the survey 257 questionnaires in 1998 and 522 questionnaires in 2005 were effectively used to compare the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color between the both period. The statistics was performed with frequency analysis and independent t-test in SPSS 10.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Color perception according to time passag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d, yellow, green, and blue color. 2) Color preference according to time passag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d, green, and blue color. 3) Color perception among three regions according to time passag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d color in Seoul, yellow color in Seoul, Mokpo and Jeju, green color in Seoul and Mokpo, blue color in Seoul, Mokpo and Jeju, and purple color in Seoul. 4) Color preference among three regions according to time passag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yellow color in Mokpo, green and blue color in Seoul, Mokpo and Jeju.

**Key words** : perception of color, preference of color, munsell

## 1. 서 론

최근 화장품업계에서는 색채연구소를 개설하여 메이크업 전문가와 함께 색상선호도 연구 등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색조화장품 출시가 붐을 이루고 있으며, 메이크업 색조전문제품의 마케팅을 위해 국내화장품 사업부는 대학의 색채디자인연구소와 공동으로 메이크업 색채를 개발하여 한국인의 피부와 기호에 맞는 선호색상을 개발하였다.

이은임(2000)은 의복과 화장의 일반적인 지각이론에서 색은 가장 눈에 띄는 요소로서 개인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고, 신체에 대한 색은 가장 직접적인 미적 표현방법으로서 자기 만족감을 주는 수단이며 타인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색채는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으며 색에서 받는 인상은 각각각색이고 그에 따른 표현방법이나 감정도 다양하다. 색채의 인지역할을 맡은 무의식은 두가지 영역이 있는데 집단적 무

의식과 개인적 무의식이다. 집단적 무의식은 장기간에 걸쳐 색의 의미나 연상들이 인간 경험으로 쌓여 축적된 것으로 대표적인 색의 상징이 있다. 개인적 무의식의 예로는 색의 기호를 들 수 있으며 이것은 그 개인의 본성과 과거에 접한 색에 대한 경험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색채를 통해 갖게 되는 이미지는 개인이 갖는 주관적 경험과 보편적 상징에 의한 객관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연의 풍토와 문화는 사람들의 색 기호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색채에 대한 기호 감정은 역사적 전통과 시대적 변천, 문화의 발달로 생활환경속에 영향을 주며 변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색채성향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사용해 온 색채에 대한 전통과 특이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그 지역의 기후와도 관련이 있다. 사람들이 색에 대한 좋고 싫음의 감정으로 인한 선호의 경향은 개인차가 있으며, 이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지리적 조건, 사회조건 및 개인의 생활환경의 영향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색상은 다양한 의미를 축적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시간 변천에 따른 색상 변화의 이해는 의복의 색채사용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며 이에 대해 정확히 인

Corresponding author; Hea-Ryung Park  
Tel. +82-41-660-1371, Fax. +82-41-660-1119  
E-mail: hrpark@hanseo.ac.kr

식함으로써 디자이너와 소비자의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색채계획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색채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의복디자인에서 의복의 색상에 관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 없이는 색채디자인이란 다루어 질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998년과 2005년의 조사대상자의 색상 인지도와 선호도를 비교하여 시간변천에 따른 변화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및 절차

### 2.1. 연구문제

본 논문은 조사대상자의 색상 인지도와 선호도가 시간에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998년 인지도와 선호도의 설문조사 결과와 2005년 인지도와 선호도의 설문조사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 1) 1998년과 2005년의 조사대상자의 색상 인지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1998년과 2005년의 조사대상자의 색상 선호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1998년과 2005년의 지역별 색상 인지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 1998년과 2005년의 지역별 색상 선호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은 서울, 목포, 제주에서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첫 번째 조사는 1998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조사는 2005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1998년에는 사용가능한 257부를 사용하였으며 2005년에는 사용가능한 522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지리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내륙인 서울과 삼면이 바다인 목포 그리고 섬으로 이루어진 제주도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밖에 성별에 따라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분포를 보면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1998년	2005년
성별	남	12.8%	25.5%
	여	87.2%	72.8%
지역	서울	35.8%	42.5%
	목포	34.6%	29.3%
	제주	29.6%	25.7%

1998년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여자가 87.2%, 남자가 12.8%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35.8%, 목포가 34.6%, 제주가 29.6%이였으며, 2005년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25.6%, 여자가 72.8%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42.5%, 목포가 29.3%, 제주가 25.7%로 나타났다.

### 2.3. 측정방법 및 분석

설문항목은 기존문헌과 연구목적에 토대로 개발되었다. 색상의 인지도와 선호도의 변인으로는 면셀의 순색 값을 Fig. 1과 같이 사용하였는데 Red(2.5R-10R), Yellow(2.5Y-10Y), Green(2.5G-10G), Blue(2.5B-10B), Purple(2.5P-10P)로 빨강색상, 노랑색상, 녹색, 파랑색상, 보라색상의 5가지 색상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Table 2와 같이 한 색상 당 5단계로 나누어 칼라 칩을 보여주고 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예를 들어 빨강색상에서 2.5R에 가까울수록 빨강색상은 파랑색상이 많이 섞인 어두운 빨강색상에 가깝고 10R에 가까울수록 노랑이 많이 섞인 밝은 빨강색상이 된다.

또한 인지도는 평소에 자신이 빨강색상이라고 알고(인지) 있던 색상을 조사자가 제시한 5단계의 색상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선호도는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빨강색상을 조사자가 제시한 5가지 빨강색 가운데서 지적하도록 하였다. 측정환경은 형광등은 표준 D65에 비해 녹색과 청색의 경우 오차 발생을 무시할 수 없으나 실험대상자가 색을 인지하는 환경은 강의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실시되었다.

설문지 결과분석은 조사대상자의 기초조사를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색상 인지도와 선호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1998년 조사된 인지도와 선호도의 평균값과 2005년 조사된 인지도와 선호도의 평균값을 t-test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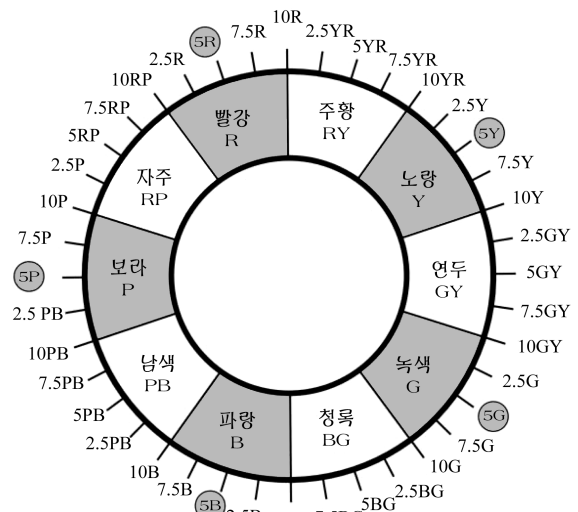


Fig. 1. 면셀 색상환의 색분할.

**Table 2.** 기초색상의 먼셀색상환값에 따른 5점 척도\*

색상	5점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R	2.5R4/14	5R5/14	5R4/14	7.5R4/16	10R5/16
Y	2.5Y8/16	5Y8.5/14	5Y8/14	7.5Y8.5/12	10Y8.5/12
G	2.5G/12	5G5/10	5G4/10	7.5G4/10	10G4/10
B	2.5B5/10	5B6/10	5B4/10	7.5B5/10	10B5/12
P	2.5P4/12	5P4/12	5P3/10	7.5P4/12	10P4/12

R:Red Y:Yellow G:Green B:Blue P:Purple

\*: 먼셀의 분류값은 모든색을 2.5-10까지 나누었으며, Table 2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작은 값(2.5)을 1점으로 하고 가장 큰 값(10)을 5점으로 하여 5단계로 나누었다.

### 3. 결 과

#### 3.1. 조사대상자의 색상 인지의 시간 경과에 따른 차이

조사대상자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같은 색상을 인지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1998년 조사대상자의 각각의 색상 인지도의 평균값과 2005년 조사대상자의 각각의 색상 인지도 평균값을 t 검증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결과를 보면 보라색상을 제외한 빨강색상과 노랑색상, 녹색, 파랑색상에서 유의차를 나타내고 있다. 빨강색상의 1998년과 2005년의 인지도 평균값은 3.278과 3.133이고 t값은 1.964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차가 있어 1998년의 빨강색상의 인지도와 2005년의 빨강색상의 인지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랑색상의 1998년과 2005년의 인지도 평균값은 1.675와 2.384이고 t값은 -8.074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차가 있어 노랑색상도 1998년과 2005년에 인지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도 1998년과 2005년의 평균값이 3.169와 2.768이고 t값이 3.382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차가 있어 1998년과 2005년에 녹색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랑색상의 인지도도 1998년과 2005년에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의 평균값이 4.613과 4.352이고 t값이 2.403으로 .05에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98년과 2005년에 파랑색상의 인지도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3.2. 조사대상자의 색상선호의 시간 경과에 따른 차이

조사대상자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같은 색상을 선호하는데 차

**Table 3.** 1998년과 2005년의 조사대상자의 색상인지도 차이

색상	1998년 색상 인지도 평균값	2005년 색상 인지도 평균값	t 값
R(빨강색)	3.278	3.133	1.964*
Y(노랑색)	1.675	2.384	-8.074***
G(녹색)	3.169	2.768	3.382***
B(파랑색)	4.613	4.352	2.403*
P(보라색)	2.725	2.669	.436

\*p<.05, \*\*p<.01, \*\*\*p<.001

**Table 4.** 1998년과 2005년의 조사대상자의 색상선호도 차이

색상	1998년 색상 선호도 평균값	2005년 색상 선호도 평균값	t 값
R(빨강색)	3.235	2.996	2.376*
Y(노랑색)	2.588	2.596	-.069
G(녹색)	3.529	2.569	8.330***
B(파랑색)	2.972	3.799	-6.147***
P(보라색)	2.893	3.059	-1.695

\*p<.05, \*\*p<.01, \*\*\*p<.001

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1998년 조사대상자의 각각의 색상 선호도의 평균값과 2005년 조사대상자의 각각의 색상 선호도 평균값을 t 검증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결과를 보면 보라색상을 제외한 빨강색상과 녹색, 파랑색상에서 유의차를 나타내고 있다.

빨강색상의 1998년과 2005년의 선호도 평균값은 3.235와 2.996이고 t값은 2.376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차가 있어 1998년의 빨강색상의 선호도와 2005년의 빨강색상의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색상의 1998년과 2005년의 선호도 평균값은 3.529와 2.569이고 t값은 8.33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차가 있어 녹색도 1998년과 2005년에 각각 선호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파랑색상도 1998년과 2005년의 선호도 평균값이 2.972와 3.799이고 t값이 -6.147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차가 있어 1998년과 2005년에 파랑색상 선호도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 지역별 인지도의 시간경과에 따른 차이

지역별 서울, 목포, 제주는 각각 시간 경과에 따라 같은 색상을 인지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1998년 서울, 목포, 제주 각각의 색상 인지도의 평균값과 2005년 서울, 목포, 제주 각각의 색상 인지도 평균값을 t 검증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결과를 보면 빨강색에서는 서울이, 노랑색은 모든 지역인 서울, 목포, 제주가, 녹색은 서울, 목포가, 파랑색은 모든 지역인 서울, 목포, 제주가, 보라색은 서울이 1998년과 2005년의 인지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빨강색에서 서울지역의 1998년과 2005년의 빨강색 인지도 평균값은 3.326과 2.859이고 t값은 3.145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차를 나타내고 있어 서울에서 1998년과 2005년의 빨강색 인지도 비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랑색은 모든 지역인 서울과 목포 제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서울지역의 1998년과 2005년의 노랑색 인지도 평균값은 1.674와 2.065이고 t값은 -2.645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차를 나타내고 있어 서울은 1998년과 2005년의 노랑색 인지도 비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목포의 1998년과 2005년의 노랑색 인지도 평균값은 1.693과 2.602이고 t값은 -5.752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목포에서 1998년과 2005년의 노랑색 인지도 비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의 1998년과 2005년의

**Table 5.** 1998년과 2005년 지역별 색상인지도의 차

색상	지역	1998년 색상 인지도 평균값	2005년 색상 인지도 평균값	t 값
R(빨강색)	서울	3.326	2.859	3.145
	목포	3.261	3.296	-.289
	제주	3.240	3.133	.929
Y(노랑색)	서울	1.674	2.065	-2.645**
	목포	1.693	2.602	-5.752***
	제주	1.653	2.387	-4.893***
G(녹색)	서울	3.185	2.576	3.657***
	목포	3.239	3.000	1.992*
	제주	3.027	2.827	1.250
B(파랑색)	서울	4.685	4.261	3.141**
	목포	4.443	4.102	2.375*
	제주	4.867	2.827	13.939***
P(보라색)	서울	2.739	2.435	1.972*
	목포	2.773	2.807	-.212
	제주	2.733	2.533	1.009

\*p<.05, \*\*p<.01, \*\*\*p<.001

노랑색 인지도 평균값은 1.653과 2.387이고 t값은 -4.893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1998년과 2005년의 인지도 비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녹색은 서울과 목포에서 1998년과 2005년의 녹색 인지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1998년과 2005년의 녹색 인지도 평균값은 3.185와 2.576이고 t값이 3.657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서울에서 1998년과 2005년의 녹색 인지도 비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목포의 1998년과 2005년의 녹색 인지도 평균값은 3.239와 3.000이고 t값이 1.992로 유의수준 .05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1998년과 2005년의 녹색인지도 비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파랑색은 서울, 목포, 제주 모든 지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의 1998년과 2005년의 파랑색 인지도 평균값은 4.685와 4.261이고 t값이 3.141로 유의수준 .01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울에서 1998년과 2004년의 파랑색 인지도 비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목포에서는 1998년과 2005년의 파랑색 인지도 평균값이 4.443과 4.102이고 t값이 2.375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목포에서 1998년과 2005년의 인지도 비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에서도 1998년과 2005년의 파랑색 인지도 평균값이 4.867과 2.827이고 t값이 13.939로 유의수준 .001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제주에서 1998년과 2005년의 파랑색 인지도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라색에서는 서울지역만 1998년과 2005년의 인지도 비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지역의 1998년과 2005년의 보라색 인지도 평균값이 2.739와 2.435이고 t값이 1.972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4. 지역별 선호도의 시간경과에 따른 차이**

지역별 서울, 목포, 제주는 각각 시간 경과에 따라 같은 색상을 인지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1998년

**Table 6.** 1998년과 2004년 지역별 색상선호도의 차

색상	지역	1998년 색상 선호도 평균값	2004년 색상 선호도 평균값	t 값
R(빨강색)	서울	3.152	2.870	1.844
	목포	3.284	3.193	.623
	제주	3.280	3.120	.826
Y(노랑색)	서울	2.859	2.641	1.010
	목포	2.432	3.102	-3.472***
	제주	2.440	2.840	-1.924
G(녹색)	서울	3.413	2.544	4.621***
	목포	3.511	2.864	3.219**
	제주	3.693	2.720	4.079***
B(파랑색)	서울	3.077	3.791	-3.214**
	목포	3.023	3.943	-4.485***
	제주	2.813	3.653	-3.713***
P(보라색)	서울	2.891	2.946	-.260
	목포	2.818	3.091	-1.252
	제주	2.800	3.027	-1.033

\*p<.05, \*\*p<.01, \*\*\*p<.001

서울, 목포, 제주 각각의 색상 선호도의 평균값과 2005년 서울, 목포, 제주 각각의 색상 선호도 평균값을 t 검증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1998년과 2005년의 색상 선호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노랑색에서 목포지역이, 녹색과 파랑색에서는 전 지역인 서울, 목포, 제주가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노랑색에서 목포지역의 1998년과 2005년의 노랑색 선호도 평균값은 2.432와 3.102이고 t값은 -3.472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차를 나타내고 있어 목포에서 1998년과 2005년의 노랑색 선호도 비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녹색에서는 전지역에서 선호도 유의차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의 1998년과 2005년의 녹색 선호도 평균값은 3.413과 2.544이고 t값은 4.621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서울에서 1998년과 2005년의 녹색 선호도 비교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목포의 1998년과 2005년의 녹색 선호도 평균값은 3.511과 2.864이고 t값은 3.219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1998년과 2005년의 녹색 선호도 비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주에서의 1998년과 2005년의 녹색 선호도 평균값은 3.693과 2.720이고 t값은 4.079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차를 나타내고 있어 제주에서 1998년과 2005년의 녹색 선호도 비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파랑색에서도 전 지역에서 선호도 유의차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의 1998년과 2005년의 파랑색 선호도 평균값은 3.077과 3.791이고 t값은 -3.214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서울에서 1998년과 2005년의 파랑색 선호도 비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목포의 1998년과 2005년의 파랑색 선호도 평균값은 3.023과 3.943이고 t값은 -4.485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1998년과 2005년의 파랑색 선호도 비교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주의 1998년과 2005년의 파랑색 선호도 평균값은 2.813과 3.653이고 t값은 -3.713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제주에서도 1998년과 2005년의 파랑색 선호도 비교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4. 결 론

본 논문은 조사대상자의 색상 인지도와 선호도가 시간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1998년의 색상의 인지도와 선호도의 조사결과와 2005년의 색상의 인지도와 선호도의 조사결과를 비교 조사하였다.

결론을 보면, 첫째, 조사대상자의 색상 인지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차이에서는 보라색을 제외한 빨강색, 노랑색, 녹색, 파랑색상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랑색과 녹색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색상 선호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차이에서는 노랑색과 보라색을 제외한 빨강색, 녹색, 파랑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녹색과 파랑색의 선호도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인지도의 시간경과에 따른 차이에서는 빨강색에서 서울지역이, 노랑색상에서는 서울, 목포, 제주지역이, 녹색에서는 서울, 목포지역이, 파랑색에서는 서울, 목포, 제주지역이, 보라색에서는 서울지역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랑색에서는 목포지역과 제주지역이, 녹색에서는 서울지역이, 파랑색에서는 제주지역이 큰 인지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선호도의 시간경과에 따른 차이에서 노랑색에서는 목포지역이, 녹색과 파랑색에서는 서울지역과 목포지역, 제주지역이 지역별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론에서 보면 조사대상자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색상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지역별에 따른 조사대상자들의 색상의 인지도와 선호도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색상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

었으며, 소비자 색상변화로 인한 의복디자인, 패션상품 디자인의 색채계획과 마케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한국 색상 이미지를 살리는 패션과 관련된 패션문화상품등의 제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색상 인지도와 선호도의 변화는 지속적인 관찰을 요하고 계속해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기환 (1995) “색채디자인”. 도서출판 국제, 서울, p.12.  
 김용훈 (1987) “MERCHANDISING을 위한 색채상품 개발론”. 청우, 서울, pp.11-15.  
 김진한 (1997) “색채의 영향”. 시공사, 서울, pp.5-8.  
 박중서 (2000) “Color로 승부하는 감정시대”. 글항, 서울, p.7.  
 박혜령 (1998) 지역에 따른 색의 인지도와 선호도. *한국색채학회논문집*, 10, 102-109.  
 박혜령 · 심규남 · 박미령 (1998) 조사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에따른색 의인지도와선호도. *한국색채학회논문집*, 11(1), 23-36.  
 박혜령 · 심규남 (1998) 환경특성에 따른 색의 인지도. *국제부식학회지*, 17.  
 박옥련 (1998) “색채이론과 활용”. 형설출판사, 서울, pp.6-12.  
 이성민 (1998) 색채가 주거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원자 · 심규남 · 박혜령 (1997) 나이와 지역에 따른 피부색, 화장색, 얼굴색의 분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9, 37-47.  
 예명선 (2001) 아동의 색채 이미지 선호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은경 (1988) 한국인의 색채 의미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임 (2000) 화장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수명 (2002) “색채심리마케팅”. 도서출판국제, 서울, pp.7-13.  
 최승희 · 이명순 (2002) “색채환경 그리고 인간의 반응”. 도서출판국제, 서울, pp.12-19.  
 최영훈 (1987) “색채학개론”. 미진사, 서울, pp.6-9.  
 KBS 한국색채연구소 편 (1991) “실용 한국표준색표집”. KBS문화사업단.  
 KBS 한국색채연구소 편 (1991) “실용배색”. KBS 문화사업단.  
 J. Ward (1912) “Color, Harmony and Contrast”. Chapman and Hall, N.Y.

(2006년 2월 22일 접수)